사 설

문화재조사 미룰 수 없다

문화재청이 2001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계획한 '불교문화재 일제 조사' 사업 계획이 백지화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놓였다. 5억원으로 책정된 예산이 국회의 새해 예산 처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됨으로써 사업 추진의 근거마저 잃게 된 것이다.

현재 불교계가 이 일을 두고 분노 이상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은 예산 즉 돈 배정 문제 때문이 아니다. '나라의 일' 로 추진되어야 마땅할 사업이 궤도를 이탈했다는 데 있다.

불교의 많은 성보들이 '보물' 이나 '국보' 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는 것도, 그것이 불교계의 것만이 아니라는 국민적 공감의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불교 문화재 일제 조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렇다면 이번 국회의 처리 결과는 무성의나 무관심을 넘어 무지의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조계종에서는 자체적 노력만으로 '불교문화재 도난 백서' 를 발간하는 등 문화재 보호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것은 결코 특정 종교 집단의 자산 관리 행위가 아니었다. 불교 문화재들이 조계종의 것이 아님은 물론 불교도의 것만도 아니질 않는가. 다만 불교 문화재이자 민족 문화의 고갱이인 만큼 정부의 몫까지 떠맡기를 기꺼이 했던 것이다. 스님들이 기거하는 요사채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정문화재인 한은 비가 새도 기와 한 장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찰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불편도 감수한다. 그것이 단순한 집이 아님을, 절집의 소유물만이 아님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의 예산 백지화는 문화재 보호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도 정면 배치된다. 좋은 예로, 지난 해 8월 26일에 입법예고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의 입법 취지와 정면으로 부딪친다. 6만 여건에 이르는 사찰의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전제되지 않는 한, 도난의 표적이 되고 있는 비지정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이 법률은 있으나마나 한 법이 될 것이 뻔하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보호를 한단 말인가.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예비비로라도 불교문화재 조사사업 예산은 확보되어야 한다.

'연합감찰제' 필요하다

최근 경실련의 공기업체 후원 요구가 언론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정치와 경제 등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집단에 대한 감시와 비판 활동이다. 언론이 경실련을 나무라는 것은, 비판과 감시의 대상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경우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비판을 받는 경실련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겠지만, 그만큼 남을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행실이 떳떳해야 함은 물론이다.

종교인과 종교단체도 정부와 기업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큰 역할을 하는 곳이다. 종교는 예로부터 정신과 사상의 발원지이며, 우리 사회 최후의 양심의 보루라는 칭송을 받아왔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다. 종교는 절대적인 신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영향력만큼이나 그 책임이 시민단체에 비할바 아니다. 정부와 기업의 실패는 법적인 심판으로서 평가를 받겠지만, 종교인의 악영향은 양심의 심판을 받는다. 종교인의 잘못된 가르침과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인 폐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행자와 성직자들의 잇따른 비행을 보면서 자칫하다가는 종교의 존엄 자체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종단협에서 지난 해 종단연합감찰제 시행을 검토한 것도 승가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이해한다.

물론 몇 종단 이외에는 호법업무를 담당할 부서조차 없는 현실에서 연합감찰제는 실현성이 없다는 우려에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각 종단의 호법업무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고, 징계자의 타종단 등록을 막는다든가 하는 낮은 단계의 연합업무부터 하다보면 차츰 정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단속하고 징계를 내리고 하는 것은 아주 하급의 조치이다. 연합감찰제도에 대해서는 이러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건강한 집단일수록 제재 일변도의 조치에 대한 비판이 많다. 그러나 사바세계에서 상급의 조치만 있을 수는 없다. 연합감찰제를 시행하면 예방의 효과도 클 것이다. 종단 관계자와 종단협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길 기대한다.

북동포돕기 온정 밀물

종단협-평불협 겨울내의 · 밀가루 전달

불교교육硏 어린이 의료장비 · 약품 지원

11일 진각종의 월동용품 1컨테이너가 북한에 전달되는 것을 필두로, 교계 종단 및 단체가 새해 시작과 함께 겨울생필품 및 어린이 치료용 약품 북한보내기 운동에 적극 나선다. 이 같은 교계의 지속적인 북한 지원활동은 최근 소강상태에 빠져 있는 각계의 대북지원사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단협의회와 진각복지재단, 평화통일불교협회 등이 이달 중 각각 3,000만원 상당의 물품과 60톤의 밀가루를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에 전달한다. 또 좋은벗들과 불교교육연구원도 사랑의 보따리와 어린이치료 장비 및 의약품을 탈북난민과 북한어린이들에게 보낸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는 20일(예정) 겨울내의와 운동화 1컨테이너를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에 전달할 계획이다. 종단협은 이달 초부터 종단협 소속 조계, 태고, 천태, 진각종 등 4개 종단을 비롯 26개 종단이 십시일반으로 1월 북한지원 기금 3,000만원을 모았다.

진각종(통리원장 성초) 사회복지재단과 국제불교연구소도 11일 종도들의 성금으로 마련한 겨울점퍼와 내의 등 2,500점을 북한에 보낸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대표 법타)는 13일 겨울내의 2천점과 모포 1천장, 양말 1만켤레를 북한에 보낸다. 또 20일에는 평불협이 운영하는 사리원국수공장에 밀가루 60톤도 전달할 예정이다.

(사) 좋은 벗들(이사장 법륜) 역시 이번 달부터 중국현지에서 탈북난민들에게 '사랑의 보따리' 를 전달한다. '사랑의 보따리' 에는 겨울옷과 간장, 식용유, 옥수수, 쌀 등 생필품 및 식량이 들어있다.

불교교육연구원(원장 황화현)도 지난해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 무용단의 공연수익으로 마련한 어린이 치료용 의료장비 및 기초 의약품을 3~4월경 북한에 보낸다는 계획이다.

종단협의회 사무총장 법현스님은 "21세기 새해를 여는 자비의 실천이 교계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교계의 대북 지원사업은 남북이 민족공동운명체임을 인식하고, 민족의 통일이 하루빨리 이룩되도록 하는데 일조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조계종 총무원은 3일 시무식을 갖고 총무원 청사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뢰받는 종무행정"

각 종단 신년하례법회

조계, 태고, 천태, 진각종 등 각 종단들이 시무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정대)은 3일 종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층 불교회관에서 시무식을 개최했다.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2월부터 건축설계에 들어가 1년반의 공기로 본격적인 청사건립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종연)은 5일 중앙불교회관에서 100여명의 종단간부및 서울 경기지역 사암주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했다. 총무원장 종연스님은 "대승교화종단의 이념정립과 종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총무원을 만들겠다"며 "종무네트워크 구축과 민족통일불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천태종과 진각종도 각각 2일과 4일 구인사와 통리원에서 시무식을 갖고 종무계획을 발표하고 종단 발전을 기원했다. 김원우기자

범어·통도사 종회의원 보선 촉구

조계종 중앙선관위

해인사 내달 13일 실시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명)는 4일 70차 회의를 열고 종회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못한 14교구(범어사)와 15교구(통도사)에 조속히 보궐선거를 실시하라는 공문을 10일 간격으로 세 차례 발송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구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호법부에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해인사는 다음 달 13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중앙선관위는 또 다음 달 14일 직능직종회의원 선출위원회(위원장 정대)를 열어 현묵스님의 종회의원 사퇴로 공석이 된 선원대표 종회의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다음 달 5~7일 입후보등록을 받아 9일 입후보자 자격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확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중앙선관위 연수를 3월 28~29일 법주사에서 열기로 했다. 중앙선관위 구성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연수는 종단 내 선거 관련 전문가와 정부 중앙선관위 전문강사의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성운기자

"사찰·문화재 보러" 20%
"등산·체력 키우러" 40%

18개 국립공원 이용객 조사

국립공원 탐방객들은 5명중 1명꼴로 문화재와 사찰을 관람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탐방객들은 여전히 사찰 이정표 등 공원 안내시설 등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달 10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의 18개 국립공원 탐방객 3천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23.6%인 751명이 불편사항으로 안내시설 부족을 지적했다고 구랍 31일 밝혔다. 김재경 기자

☞1면 '자원봉사' 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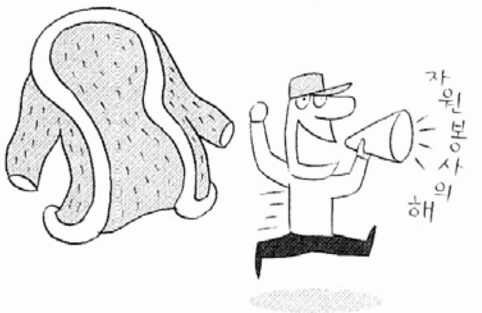
프로그램의 단조로움도 문제다. 간병, 무료급식, 발관리 등 몇몇 분야의 인력만을 양성하다보니 봉사활동 분야의 폭도 좁을 수밖에 없고, 수요자를 기다리는 공급자 중심의 소극적 활동이 반복되고 있다.

다른 종교와의 비교에서도 불교 자원봉사의 열악한 현주소는 그대로 드러난다. 자원봉사 실천연구교육 민간단체인 '볼런티어 21' 이 99년 우리나라 성인 15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원봉사자의 81.4%가 종교인이며, 이중 개신교가 36.7%로 가장 많았고, 불교 22.3%, 가톨릭 21.9% 순이었다. 수적으로만 본다면 개신교인의 활동이 훨씬 활발한 셈이다. 가톨릭의 경우는 불교와 수적으로는 비슷하나 각 교구별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어 질적인 면에서는 불교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하다.

조계종 복지재단 이호걸 과장은 "1사찰 1봉사단 조직, 교육 및 관리 통합시스템 구성, 불자라면 당연히 봉사한다는 신행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과 인력부터 해결돼야 하며, 종단과 스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현 대 만 평 박구원



움츠린 마음 활짝 열고

"시주금 주지소유 아니다"

부산지법 판결…사찰 재정공개 청신호

사찰 주지와 신도간의 분쟁으로 인한 시주 수입금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주지가 개인 수입금을 전제로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8단독 김무신 판사는 3일 부산시 강서구 C사찰 주지 K스님이 자신의 주지 취임을 방해한 신도회장 김모씨 신도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실 시주수입금을 배상할 책임은 없지만, 주지 취임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정신적 고통을 준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시주수입금 손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주수입금이 있을지라도 시주는 주지직에 있는 원고 개인의 수입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 개인의 수입금을 전제로 한 배상 요구는 부당하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 이영철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은 사찰재정 투명화 및 교단자정운동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졌다"며, "오는 3월28일 교단자정감시지원센터 준비위 발족을 계기로 사찰청정지수를 개발, 모니터링 활동을 벌여 모범 사찰을 선정하는 등 사찰재정공개운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창 종 공 고

本 宗은 大願本尊이신 地藏王佛과 諸佛菩薩의 共通된 情神을 이어받아 大佛宗이라 稱한다. 일찍이 地藏王菩薩께서는 地獄衆生들이 단 1人이라도 남을시 결코 成佛하지 않으리라 하셨다. 또한 釋迦世尊께서는 末法衆生의 根氣를 觀察하시어 成道의 이행문을 열어 놓으시니 打力 自力信仰의 地藏菩薩 禪敎念佛로 生存安樂과 死後 極樂往生 하신다 하였다. 이에 新羅 王子이시며 中國 구화산의 地藏菩薩로 나투신 김 교각 大宗師를 宗祖로 모시고 용각 만덕 大禪師를 建宗祖로 하여 地藏信仰의 大本山으로 자리매김한다. 아울러 地藏經을 所衣經典으로 하고 기타의 諸 經典을 두루 硏究하는 것을 제한치 않으며 末法衆生들에게 彌勒 부처님이 오시기 전가지 一切衆生을 諸道하시는 地藏菩薩님의 큰 뜻을 펴고자 함이다. 本 宗은 地藏王佛의 菩薩情神과 諸佛菩薩의 共通된 情神을 指向하고 그에 따른 眞言, 다라니, 經, 등을 崇拜하며 佛法僧 三寶를 護持하고 念誦 念佛 呪力參禪 修行을 통해 無相大道를 成就하는 것을 終止로 하여 창종을 宣布합니다.

대한불교대불종

종 정 : 석만덕
총무원장 : 석등명
종회의장 : 석등오
사정원장 : 석등각
교육원장 : 석월화
대원부장 : 석법성
총무부장 : 석도범
사회부장 : 석종성
기획부장 : 석종월
재무부장 : 석인석
호법부장 : 석성원

창종발기사찰

의성	등운사	석월화	영천	만월사	석등각
포항	자명선원	석등명	안동	정법사	석종범
영천	등명사	석일월	대구	증심사	석종월
속초	관음사	석용각			

外 10개 사찰

불기 2545년 1월 1일

대한불교 대불종 총무원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오동리 603-2번지
전화 (054)-337-4572 / 338-7702 / 팩스 (054)833-1082

지장보살 염송회원 및 대불종 입종 공고

본 대한불교대불종은 지장왕불의 보살정신을 계승하여 불교의 대중화 및 보살사상의 전법을 위하여 지장보살칠백만독염송회를 결성 현재 여법하게 법회를 봉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장보살칠백만독 염송회원을 널리 모집하오니 이번 기회에 회원이 되셔서 정법선양에 동참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본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따르는 스님들의 입종을 받고 있사오니 뜻있는 분들의 동참으로 동공발원동공성불을 기약해 보십니다.